



# 무선랜 보편화 경향 강세 “하반기 시장 전망 청신호”

유통 · 제조 · 유선통신 업체 중심...시장 견인차 역할

취재 김심훈 기자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말로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국가적인 명성 혹은 새로운 국민적 단합을 통합 애국심의 고취 등등. 하지만 이외에도 우리나라 IT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 본다.

월드컵 기간중 TV를 통해 외신기자들이 놀라던 것들은 기사실을 포함, 국내 방송사(지상파를 포함한 온라인 방송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서 말이다. 그것이 무슨 놀라운 일일까하는 의구심이 들수도 있지만, 그동안 방송에 꼭 필요하던 거추장스러운 케입블 선들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바로 운동장에 설치된 무선랜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우선 현장에 살아있는 그림을 촬영하는 사진기자들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됐다.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로 명장면을 포착하는 순간, 해당 사진은 즉석에서 전송됐다. 그 사진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무선 액세스포인트를 통해 경기장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 TV로 지켜보던 명장면들이 불과 수초만에 인터넷에 생생한 그림으로 올라 네티즌들에게(물론 TV 시청이 불가능 했던 본인 역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같은 무선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무선랜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수초만에 경기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 무선랜 “기지가 켜다”

하지만 무선랜의 성공담은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지난해 메트로이더넷과 더불어 핫이슈 중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던 무선랜 시장이 올해 초 장비업체와 서비스업체, 그리고 입찰업체 등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멀어졌던 적이 있었다. 폭발적인 사용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던 무선랜서비스사업자들이 막상 투쟁을 연지 한달이 지나도록 가입자들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

처럼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무선랜사업자들은 고객 수요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 시점을 미루는 등,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저가 장비입찰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성화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무선 개념에 대한 불신도 무선랜 시장의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데 한몫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무선랜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무선랜의 대중화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문은 바로 유통 시장이다. 통신사업자와 일반 기업의 무선랜 장비 도입 증가로 공중망 및 기업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다른 유통시장이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선랜 유통시장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직접 무선랜 장비와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통시장은 국산 및 대형 외산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공중망 및 기업용 시장과는 달리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저가의 외산 제품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통시장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경기침체로 네트워크업체가 어려웠던 지난 상반기에도 대략 50억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인이 매장을 찾아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무선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하반기에는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무선랜 업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양강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어바이어코리아의 아성에 여러 경쟁업체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업

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하반기에는 선후발업체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랜 시장의 이같은 활황세는 바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무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실시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KT·하나로·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무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을 꼽고 이 분야 사업을 위해 국내외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하반기 전반적인 시장 상황

특히 KT의 경우는 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위해 인텔 본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 확산 사업에 나서는 등 사업자간 경쟁적인 사업활성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트북 PC·PDA·이통단말기 등 정보기기 업체들은 물론 현재 AP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

업체와의 협력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KT는 하반기 주요 핵심사업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과 함께 무선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연말까지 50여만명의 무선랜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콤도 가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무선인터넷인 '에어랜(AirLAN)'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어랜서비스는 보라홈넷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약간의 추가 이용료만 부담하면 초고속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무선랜 서비스인 '하나포스 애니웨이'의 서비스 지역을 넓히기 위해 LG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무선랜서비스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무선랜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사용 제휴체결이 잇따를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이것만은 알아두자 “무선랜 보안 + 誠命”

무선랜의 활성화는 곧 무선랜 보안 문제 해결에 대한 준비를 의미한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무선랜이지만 철저한 보안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어찌보면 무선랜은 보안 부문에 있어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무선랜 보안을 위한 10가지 수칙이다.

### ▶ AP는 방화벽 바깥쪽에 설치

기본부터 출발하자. 네트워크 배치상 AP는 방화벽 밖에 있는 것이 철칙이다.

### ▶ 무선랜 ID 관리

모든 무선랜은 설치되자마자 디폴트 서비스 ID가 부여된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즉시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ID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WEP 맹신 금물

WEP(Wired Equivalent Privacy)는 무선랜 보안 프로토콜로 정보를 전송할 때 무선 데이터를 암호화시킨다. WEP를 활용할 때는 일단 처음에 네트워크를 가동시킨 후 바로 WEP 키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용자가 로그인하거나 무선 데이터 접속을 시도하는 동안이 바로 해커가 노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WEP는 뛰어난 암호화 보안기능을 갖고 있지만 결국 수많은 보안 장치 중의 하나기 때문에 WEP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는 많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쓰디 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 ▶ MAC 사용 통해 해커 퇴치

MAC(Media Access Control)은 단 하나의 등록된 장치만이 네트워크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MAC 어드레스 필터링은 집 앞 대문에 여분의 자물쇠를 추가로 채우는 것과 같다.

### ▶ VPN = 은행 지하 금고문

보안 기술을 도둑이 열어야 할 자물쇠가 채워진 입구로 비유해보자. 도둑의 검은 손이 MAC 어드레스 필터링과 동적 WEP 키 생성 장벽을 무사 통과했다. 이때 마지막으로 검은 손을 막는 것이 VPN이다. VPN은 WEP보다 높은 단계인 레이어3 보안을 제공한다.

### ▶ 보다 나은 장비 선택

무선LAN 장비의 필수 항목인 Wi-Fi 인증은 해당 장비가 IEEE802.11b 표준에 기반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른 제품들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Wi-Fi는 호환성만을 보장해줄뿐 제품의 성능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안 기능이 뛰어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RADIUS 서버 지렛대 사용

대기업의 원거리 사용자들은 보통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서버를 통해 회사 네트워크 사용 인증을 받는다. 무선랜을 기존 라디우스 환경에 통합시키면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간단해지고 보안 수준도 높일 수 있다.

### ▶ 유무선 환경 보안체계 통합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통합하는 보안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용자가 유무선 환경에서 동일한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통합하면 관리와 비용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 내부 보안 강화

무선랜 장비는 현재 비전문가가 무선 라우터나 AP를 직접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침입탐지 툴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내부자의 해킹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 KAIST 전자정부 고위과정(AeG) 모집공고

## ■ 초청의 글

KAIST는 확고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로드맵을 정립하고, 정부현장에서 필요한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근무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완성을 앞당기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KAIST 전자정부 고위과정(AeG)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e-Government Leader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고, 변화관리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귀하를 초대합니다.

## ■ 본 과정의 교육목표

- 지식기반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고위 관리자들에게 지식정보 마인드를 확산하고 조직 혁신관리에 대한 IT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지식기반 전자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인식 제고
  - IT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의 이해
  - 창조적 학습조직화를 위한 관리자의 리더십 배양
  - 국민 감동 지향적 정부구현을 위한 최신기법과 기반기술의 이해

## ■ 본 과정의 특징

- 타 과정과 비교되는 IT 기반의 프로그램 제공
- 공무원들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인이 함께 하는 협업프로그램 제공
- 행정에 도입될 수 있는 경영학의 최신경영기법에 대한 이해 제공

## ■ 지원자격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
- 공공부문(공사, 공기업 등) 임·직원
- SI를 포함한 민간업체 전자정부 관련 책임자

##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공무원 : 20명
-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 : 20명

## ■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

- 교육기간 : 2002년 10월 1일 ~2002년 11월 5일(6주간)
- 워크 샵 : 2002년 10월 11일(금) ~ 2002년 10월 12일(토)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17:30~22:20
  - 제 1 강의 : 17:30~18:50
  - 석 식 : 18:50~19:30
  - 제 2 강의 : 19:30~20:50
  - 제 3 강의 : 20:50~22:20

## ■ 교수진

- 김성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책결정론,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전공)
- 이희석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지식행정, 정보화 전략 전공)
- 한인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재정정보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전공)
-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보경제학, 정보투자분석 전공)
-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산업조직 및 기술정책전공)
- 황보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전자정부전공)
- 김병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통계적자료분석, 컴퓨터네트워크전공)
- 김병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전략경영, 조직설계 및 혁신리더십전공)
- 그 외 다수의 저명한 외부 강사들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공무원일 경우 기관장 추천 필요
- 재직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원서부착용 1매 포함)

##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년 8월 12일(월)부터 24일(토)까지
- 입학원서 교부방법 : e-mail 송부, 우편송부, 카이스트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 현장배부
- 입학원서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SUPEX 경영관 S471)
- 전화 : 02) 958-3570
- Fax : 02) 958-3577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KeGRC)**  
**Knowledge Based e-Government Research Center**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